

# 포장기술관리사자격제도 홍보 절실

박동기 / (주)효성 일반변압기설계팀 사원

(사)한국포장협회가 포장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4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주)효성 일반변압기설계팀 박동기 씨가 1백점 만점에 92.4점을 획득, 최고성적우수자로 수상했다.

박동기 씨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했던 게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박동기 씨는 1990년, (주)효성 창원공장 일반변압기설계팀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전기를 공장이나 빌딩, 일반가정 등에서 필요한 전압으로 공급하는 기기변압기를 설계하고 있다.

중소 포장업체인 한일목포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同楯)가 포장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동기 사원.

그는 포장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하게 됐지만 회사업무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일이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포장기술관리사 자격을 수료한 지금 항상 옆에서 늦게까지 보좌해주며 매번 우편으로 답안을 송부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박동기 사원은 “포장관리 기술사라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필기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통신교육에 실기교육을 첨가해 그 효과가 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동기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변압기 제품이 현재보다 더 좋은 포장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장설계하고 기술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포장기술관리사들의 저변확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박동기 씨.

포장기술관리사 최고 성적 우수자라는 영예를 기반으로 포장업무의 질적향상을 기대본다. ☎

# 포장장 · 단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대

최종인 / (주)필맥스 필름연구소 주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호영 대표이사님, 박병준 생산본부장님, 그리고 방금석 연구소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주)필맥스 최종인 씨가 91.1점으로 2등으로 수료했다.

1995년, (주)필맥스에 입사한 최 주임은 콩나물 포장 필름 원료를 국산화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합성지를 개발하는 등 산업용, 식품용 포장 필름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02~2003년에는 2회에 걸쳐 사내 TPM 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우연한 기회에 (사)한국포장협회 홈페이지 방문한 이후 정부(산업자원부)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에 참석하여 국내 포장산업발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로 이번 통신교육에 참가하게 됐다.

11주간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가운데, 플라스틱의 종류를 작성하는 2주차 교육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최 주임. 그는 전공 분야였을 뿐만 아니라 (주)필맥스의 분석기기



를 이용한 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분석기기들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최종인 주임은 포장기술관리사들의 친선도모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국내포장관련 자격증(포장기술사, 포장산업기사, 포장기사, 포장기술관리사, 포장관리사) 응시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 등 실질적인 자격 취득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국내 포장업계에서 전문기술 교육을 받은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최종인 주임. 포장기술관리사 자격 획득을 계기로 “국내 포장산업의 기술 및 정보교환, 협력으로 포장기술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는 최종인 주임. 앞으로 새로운 지식의 소재를 개발함과 동시에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 포장기술관리사 저변 확대 기대

정 성 식 / (주)삼성잉크 생산부 주임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가 지난 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수료식에서는 1백9명이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주)삼성잉크 생산부 정성식 주임이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3등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기 계발을 위해 11주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마음이 흐뭇하다”는 정성식 주임은 “관리사 자격 획득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라비아 계통에 십여년 이상 근무해 오고 있는 정성식 주임은 현재 (주)삼성잉크 생산부에서 연포장 인쇄와 밀접한 그라비아 잉크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포장”이라는 것이 여전히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터. 정 주임은 국내 “포장학문”과 “포장산업”이 향후에는 선진국처럼 전문 직종으로 자



리매김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금번 제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전문직종으로 발전할 포장산업의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기를 마련한 것.

(사)한국포장협회가 주관하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개발된 11개 볼륨(Volume)을 일주일 단위로 1개 볼륨씩 시험문제 및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정성식 주임은 11주간 회사 업무 이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관련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관련 참고서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피장관련된 지식 습득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장기술관리사 제도의 정착을 통해 포장기술의 전문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정 주임은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를 통해 얻은 지식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포장업계 전체적으로도 포장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